

열처리가 $\text{Sr}_2\text{FeMoO}_6$ 의 자화와 자기저항에 미치는 영향

(Annealing Effect on magnetization and magnetoresistance in $\text{Sr}_2\text{FeMoO}_6$)

한국 외국어 대학교

김재영*, 박병직, 김영준, 이보화

1. 서 론

최근 $\text{Sr}_2\text{FeMoO}_6$ (SFMO) 다결정 시료에서 상온과 낮은 자기장에서 자기저항효과가 발견됨으로서 이 물질의 응용 가능성과 물리적 특성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.¹ SFMO의 자기저항 현상은 magnetic domain 혹은 grain boundary에서의 spin-polarized tunneling에 의한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.¹ SFMO는 perovskite ABO_3 의 B-site에 $\text{Fe}^{3+}(3d^5, S=5/2)$ 이온과 $\text{Mo}^{5+}(4d^1, S=1/2)$ 이온이 교대로 정렬된 double perovskite 구조를 가지고 있다.² SFMO는 Fe/Mo의 disorder로 인한 anti-site defect 때문에 이상적인 값인 단위구조식당 $4 \mu_B$ 이하의 saturation magnetization(M_s)를 가진다.³ 열처리 과정을 달리하면 다결정시료의 grain boundary와 Fe/Mo의 ordering을 변화시킬 수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FMO 시료 제작과정에서 열처리 온도와 열처리 시간을 달리하여, 그로 인한 magnetization(M)과 자기저항의 변화를 연구하였다.

2. 실험방법

SFMO를 고체상태반응법으로 제작하였다. 열처리 온도와 시간이 자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공기 중 900°C에서 매 24시간마다 섞고 가는 과정을 6회 반복 열처리한 분말을 5%H₂/Ar gas를 훌리면서 900°C에서 10시간동안 열처리한 후 프레스를 이용해 pellet을 만들어 1200, 1300, 1400°C에서 4시간과 15시간동안 소결하였다. magnetization은 VS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자기저항은 VSM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항 probe를 만들어 자기장을 7kOe까지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온도구역에서 측정하였다. 이들 시료에 대한 물리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.

3. 결과 및 고찰

그림 1과 2는 1200와 1400°C에서 4시간 열처리된 시료들의 저온(15K)과 상온(300K)에서 측정한 자기저항(MR)과 7kOe에서의 M 을 나타낸 것이다. 상온(300K)에서의 M 은 1.99 μ_B (1200°C)에서 3.37 μ_B (1400°C)까지 증가하였으며, MR 비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5%에서 1.8%로 감소하였다. 저온(15K)에서 M 의 크기는 2.91 μ_B (1200°C)에서 3.37 μ_B (1400°C)까지 증가하였으며, MR 비는 13.5%에서 7.9%로 감소하였다.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Fe/Mo의 disorder가 감소하고, disorder의 감소에 따라 M 값이 증가하게 된다. 또한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grain의 크기가 커지면서 grain사이에 계면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계면 사이에 전자 산란현상이 감소하여, M 값의 증가에도 불구하고, 자기저항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.^{4,5}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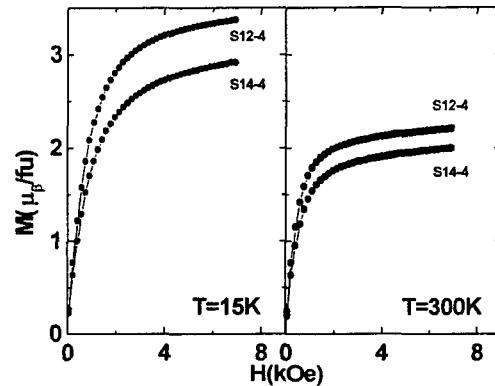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1200와 1400°C에서 4시간 열처리한 시료들의 magnetiz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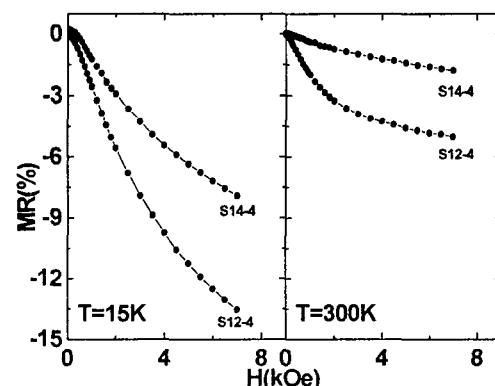


그림 2. 1200와 1400°C에서 4시간 열처리한 시료들의 MR

표 1.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$\text{Sr}_2\text{FeMoO}_6$ 의 자화 및 자기저항

시료	소결온도 (°C)	소결시간 (h)	M at 7kOe ($\mu_B/\text{f.u}$)		MR at 7kOe (%)	
			15K	300K	15K	300K
S12-4	1200	4	2.91	1.99	-13.5	-5.0
S13-4	1300	4	3.22	2.14	-8.2	-2.5
S14-4	1400	4	3.37	2.19	-7.9	-1.8
S12-15	1200	15	3.23	2.18	-15.0	-5.8
S13-15	1300	15	3.31	2.09	-7.1	-2.9
S14-15	1400	15	3.25	2.24	-6.8	-1.9

그림 3에 시료의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MR(%)을 나타내었다. 각각의 시료들은 검게 채워진 동그라미 모양(●)인 4시간동안 열처리한 시료와 비어있는 동그라미 모양(○)인 15시간동안 열처리한 시료들로 구분하였고, 각각 상온(300K)과 저온(15K)에서 측정한 MR로 구분하였다. 1200°C에서 4시간동안 열처리한 시료인 S12-4는 -13.5%(15K)와 -5%(300K)의 자기저항효과가 있었으며, 1200°C에서 15시간 열처리한 시료인 S12-15는 -15%(15K)와 -5.8%(300K)의 높은 자기저항효과를 보여준다. 이는 열처리 시간이 길어 질수록 grain의 크기가 커지면서 grain사이에 계면이 줄어들어 자기저항효과가 감소하는 것 때문이라 판단된다. 그러나 1300과 1400°C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경우, 4시간동안 열처리한 시료의 MR이 15시간동안 열처리한 시료의 MR보다 저온에서 크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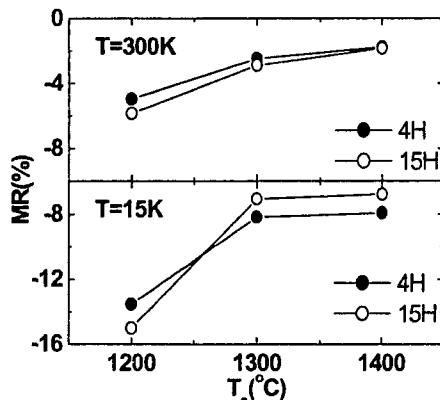


그림 3.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MR

4. 결론

열처리 온도에 따른 SFMO는 최고 상온(300K)에서 5%와 저온(15K)에서 15%의 자기저항효과가 측정되었다. 열처리 온도와 시간의 증가로 grain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계면 사이에 전자산란현상이 감소하여 자기저항효과가 줄어들은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.

5. 참고문헌

- [1] K. -I. Kobayashi, T. Kimura, H. Sawada, K. Terakura, and Y. Tokura, Nature(London) **395**, 677 (1998).
- [2] F. S. Galasso, F. C. Douglas, and R. J. Kasper, J. Chem. Phys. **44**, 1672 (1966).
- [3] A.S. Ogale, S.B. Ogale, R. Ramesh, T. Venkatesan, Appl. Phys. Lett. **75**, (1999) 537.
- [4] J. Y. Kim, Y. J. Kim, B. J. Park, B. W. Lee, C. S. Hwang, C. H. Choi, H. K. Chae, and C. S. Kim, Molecular Physics Reports, **32**, 58 (2001).
- [5] H. Q. Yin, J.-S. Zhou, R. Dass, J.-P. Zhou, J. T. McDevitt, and J. B. Goodenough, J. Appl. Phys, **87**, 6761 (2000).